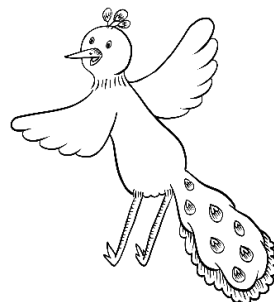


아이와 함께 하는 갤러리 <부처님의 모습 - 옮기다. 전하다. 퍼트리다.>

2025년 7월 23일(수) ~ 2025년 8월 31일(일)

1. 옮기다: 부처님의 모습을 베끼다!



먹과 붓으로 그린 부처님 그림의 주목 포인트는 '종이'.

'기름종이'라고 해서 종이에 기름을 발라 비쳐 보이도록 고안한 것이예요.

기름종이를 겹쳐 놓고 따라 그리면 그림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처음 보는 부처님의 모습을 베껴 그릴 수 있어요.

십이천 도상(비사문천)

종이를 살펴 보면 갈색이에요. 이건 기름종이의 특징 중 하나지요.

종이에 있는 가로줄은 접었던 자국이에요. 지금은 족자 형태지만 옛날에는 종이를 작게 접어서 소중하게 보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의 왼쪽 어깨 부근을 보면 선이 끊겨 있어요. 종이에 발라둔 기름 때문에 먹이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한자 붉을 주(朱)라는 글자는 '여기는 주홍색'이라는 메모예요. 이 외에도 색깔에 대한 메모가 있으니 찾아보세요. 견본에는 색칠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작명왕 도상

공작에 올라탄 부처님인 '공작명왕'이 한가득.

선만으로 그린 공작명왕과 모습이 닮은 부처님을 찾아보세요.

모습이 닮았고 색깔은 다른 부처님을 찾았나요? 선만으로 그린 견본을 토대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 나갔던 거예요.

다른 모습을 한 공작명왕도 있네요. 옛날에 한 스님이 중국으로 공부 하러 갔는데, 중국에서 돌아올 때 선만으로 그린 그림을 가져왔답니다.





2. 전하다: 부처님을 이해하는 교과서!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견본을 보면서 부처님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배우기도 하고 불상이나 부처님의 그림(불화)을 만들 때 참고로 삼았어요. 부처님 그림은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교과서였던 거지요.

깃칸쇼(분노부)

종이를 둘둘 감은 두루마리를 펼쳐 보면...

무서운 얼굴이 쪽 늘어서 있고 빨간색 또는 파란색 몸에 불꽃이!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부동명왕'이라고 하는 부처님 이에요.

다양한 모습을 한 부동명왕 그림과 함께 부동명왕에 대한 설명도 적혀 있는 '부동명왕 사전'이지요.



십육선신 도상

종이를 둘둘 감은 두루마리를 펼쳐 보면..., 많은 부처님이 뻥뻥하게 모여 있네요. 몇 명일까요? 표정, 손에 든 물건, 입고 있는 옷. 조금씩 달라 보여요. 이걸 보면서 부처님들이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공부했던 거예요.

다카오 만다라 도상

두 전시 케이스에 전시된 작품은 모두 <다카오 만다라 도상>.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정답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둘 다 '다카오 만다라'라고 하는 매우 오래되고 귀중한 그림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같지요'

하지만 만들어진 시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의 분위기도, 선도, 그림도 '다르지요'

비교하며 감상해 보세요!





3. 퍼트리다: 공부해서 만들다!

견본을 베껴서 선만으로 그린 그림 말고도 모두에게 존경받던 스님 관련 그림이나 옛날부터 유명한 그림을 참고하기도 했어요.

부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옮겨서 전해감으로써 소중한 부처님의 형태가 먼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미래로 퍼져간 거예요.

양계 만다라

그림 속에 네모와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큰 부처님과 작은 부처님이 빼곡히 그려진 이 그림은 2개가 한 세트예요.

이 전시에서 살펴본 '부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의 부처님을 찾아낼 수 있나요?



다이마 만다라

색깔은 다르지만 둘 다 주변에 작고 네모난 그림이 나란히 있고 한가운데 큰 그림이 있어요. 부처님의 모습도 닮아 있어요. 나라시대에 그려진 유명한 그림을 가마쿠라시대와 에도시대에 옮겨 그린 거예요. 수백 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부처님의 모습이 퍼져 나갔어요.

부동명왕과 두 동자

불꽃, 파란 몸에 무서운 얼굴. '부동명왕'이에요. 이 전시에서는 다양한 부동명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외에 어떤 부동명왕이 있었죠? <다카오 만다라> 속에도 있을 거예요.

